

오색으로 물든 기암절벽 ... “가을산행 떠나요”

가을에는 여행할 곳이 이곳저곳 참 많다. 특히 단풍이 절정에 이른 호남 지역에는 지금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 즐비하다. 완주도 그중 하나이다. 기암절벽과 단풍을 함께 즐기는 산행부터 노란색 은행나무 오솔길을 지닌 산사의 고즈넉함, 강변에 넓게 퍼지는 석양의 낙조까지 가을여행에서 기대하는 풍광과 낭만이 넘쳐 마음이 넉넉해지는 곳이다.

81m ‘금강구름다리’서 절경 감상
‘삼선계단’ 절벽 오르며 스릴 만끽
불명산 화암사, 단풍길 걸으며 힐링

●가을 산행의 재미와 매운맛 고루, 대둔산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완주가 자랑하고 아끼는 산이다. 사계절 모두 멋지지만 최고봉인 마천대 아래 6km에 걸쳐 펼쳐지는 화강암 기암절벽과 오색으로 물든 숲이 어우러진 가을철에 최고의 절경을 자랑한다.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10여 분 거리인 금강구름다리는 계곡 사이 허공에 걸린 흔들다리다. 81m로 길지는 않지만 여기서 보는 경치가 백미로 꼽힌다. 금강구름다리를 지나 약수정과 완판바위를 잇는 삼선계단은 대둔산 산행의 또 다른 매력. 40m, 127계단의 철제 다리인데 수직에 가까운 경사에 계단 밑으로 까마득한 절벽이 훤히 보여 오금이 저린다. 그래도 오르던 중간에 살짝 돌아서 보면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무릉도원이 눈 아래 펼쳐진다. 대둔산은 해발 878m로 높지 않고,



수직에 가까운 경사와 발 아래 까마득한 계곡이 훤히 보여 대둔산 산행의 ‘매운맛’을 보여주는 삼선계단. 너른 강자락을 물들이는 노을과 물에 비치는 햇빛의 반영이 고운 삼례 만경강철교 위 카페의 석양. ‘호남의 금강’으로 불리는 대둔산을 대표하는 영물인 금강구름다리. (위 사진부터 시계방향) 완주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3분의2 지점까지 케이블카도 있어 아주 어려운 산행은 아니다. 하지만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마천대까지 계속 가파른 오르막길이고, 대부분 간격이 불규칙한 돌

계단이다. 등산경험이 좀 있다면 산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초보자라면 숨이 가쁘고 다리가 빠근해지는 산행의 매운맛을 짧은 시간 맛 볼 수 있다.

●너른 강자락을 불그레, 만경강 노을
전국 곳곳에 노을 명소가 많지만, 삼례읍 비비정에서 보는 만경강의 낙조는 그만의 색다른 매력이 있다. 내륙의 노을 명소들이 대개 도심이나 산자락을 배경으로 하지만, 이곳은 황해로 흘러가는 너른 만경강 자락을 불그스레 물들이는 모습이 일품이다. 특히 봉동읍에서 삼례읍으로 가는 방향의 노을이 일품이다. 강에서 한가로운 노니는 철새와 강물을 반짝이는 햇살의 반영, 그리고 멀리 다리 위로 저무는 석양이 무척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시간의 분을 곱게 바른 곳, 화암사
불명산 품에 꼭 들어간 듯 자리잡은 사찰이다. 694년 신라시대에 처음 지은 유서깊은 사찰이지만 규모는 크지 않다. 역사나 규모보다 유구한 시간의 분을 곱게 바르고 산속에 차분히 자리한 모습이 우아한 절이다. 시인 안도현은 이런 화암사를 “구름 속에 주춧돌을 놓은 잘 늙은 절 한 채”라고 표현했다. 주위 지형과 조화를 이룬 절집의 자태도 좋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도 멋있다. 오밀조밀하게 이어지는 산길을 걸으며 가을 단풍을 즐기는 재미가 여간 아니다. 국보 제316호인 극락전이 절의 대표적인 문화재다.

●하나 더...폐종이공장의 변신, 산속등대
소양면 해월리에 있는 이곳은 40여 년간 방치했던 산골 폐종이공장을 활용한 도시재생 복합문화체험공간이다. 공장의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고 내부만 리모델링해 지난해 개관했다. 자연 속에서 전시, 교육, 체험, 공연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완주 |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라이프

스포츠동아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15

날씨와 생활

4일(수)

서울	0/0	인천	0/0	수원	0/0
	-1 10		2 10		-2 11
춘천	0/0	강릉	0/0	청주	0/0
	-5 11		2 14		0 11
대전	0/0	전주	0/0	광주	20/0
	0 13		2 12		5 13
대구	0/0	울산	0/0	부산	0/0
	2 13		3 13		4 15
창원	0/0	제주	20/1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3 14		11 15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 해돋이 07:00 해질 17:31 🌙 달돋이 19:53 달질 10:07

산 날씨		
북한산	-4/11	내장산 2/11
설악산	1/13	무등산 2/14
오대산	-3/11	주왕산 -3/11
속리산	-3/11	지리산 2/15
계룡산	-3/12	한라산 9/17
바다 날씨		
인천수도	2/10	안면도 꽃지 -1/12
제주도	0/11	변산반도 -3/12
경포대	2/14	거문도 3/15
속초	0/13	해운대 4/15
대전	-3/11	제주도 11/15

미세먼지		
서울	7	좋음
부산	12	좋음
대구	11	좋음
인천	5	좋음
광주	13	좋음
대전	9	좋음
경기	7	좋음
강원	8	좋음
전북	10	좋음
제주	15	좋음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447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성춘	편집국장 연제호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경연
경제산업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11월 4일(수) 음력: 9월 19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에듀윌

전국 인맥 네트워크 통해 취업기반 지원

주책관리사, 경력단절 여성에 ‘유망직종’으로 떠올라

eduwill 결혼,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직업을 잠시 포기한 경력단절 여성은 새로운 취업 자리를 알아볼 때 막막함이 앞선다. 단 1년 사이에도 회사 시스템과 업무에 대한 적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경력단절 여성의 공백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는 경우도 많다. 주책관리사는 4~50대 연령층 선호도로 정년이 없는 취업처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주책관리사는 과거와 달리 다세대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지칭한다. 난방·조명 시설에 대한

관리와 단지 내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처 등을 책임진다. 최대 4~500만 원의 임금 폭도 직업 선택에 대한 구미를 당긴다. 한 가정의 안정을 이끌며 주택을 오랫동안 관리해온 주부에게 주책관리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무가 많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의 주책관리사 관계자는 “주책관리사는 정확한 출퇴근 시간과 밀릴 걱정 없는 월급, 육아와 맞벌이를 병행할 때 보다 수월한 좋은 직업”이라고 밝혔다.

주책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알아보는 이들에게 에듀윌은 많은 도움이 되



어왔다. 에듀윌 주책관리사 합격생들이 전하는 취업스토리는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담고 있어 주책관리사를 꿈꾸는 수험생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전국적인 인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에듀윌 주책관리사는 취업 후에도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크고 작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듀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레스케이프-라한셀렉트 컬래버 패키지 진행
라한셀렉트 경주는 부티크 호텔 레스케이프와 컬래버레이션 패키지 ‘레스케이프 투 라한셀렉트’를 진행한다. 서울-경주여행 맞춤형 3연박 패키지로 서울 레스케이프 1박과 라한셀렉트 경주 2박으로 구성했다. 패키지는 객실 타입에 따라 디럭스 타입과 스위트 타입 두 가지다. 디럭스 타입은 레스케이프 아틀리에 디럭스 1박과 라한셀렉트 경주 힐사이드 디럭스 2박에 조식, 레스토랑 바우처, 서울역 샌딩 서비스, 발렛파킹 무료 주차, 경주산책 무료 디지털세트 등으로 구성했다. 스위트 타입은 레스케이프 아틀리에 스위트 1박에 라한셀렉트 경주 디럭스 스위트 또는 코너 스위트 2박을 선택할 수 있다. 2021년 3월 31일까지 투숙 가능하며, 예약은 레스케이프 예약실을 통해 우선으로만 가능하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쾌청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여명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무지개	 토끼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가을비	 용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맑음	 뱀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해·번개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수입이 늘어 기쁘다. 오늘은 장성이 망신을 만난 날이다. 장성과 망신 관계는 오행은 같은데 음양이 다르다. 서로 비슷하여 실수한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오늘은 역마다. 새로운 환경에 들뜨기 쉬운 날이라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환경에 휩쓸려 무리하면 화근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공이 인정을 받으며 문서적인 측면의 일에 발전의 계기가 조성되어 인사이동, 확장, 변경 등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 자격증의 취득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는다. 마음을 비우고 조용히 관망하라. 오늘은 뭔가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여성의 경우 남자 경에 휩쓸려 무리하면 화근이 될 수 있다.	시시한 일들로 인해 뒤통을 받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자급난에 봉착한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련의 때야말로 인간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다. 서두르면 곤란한 야기 시킨다. 상대의 입장을 살펴 보아야 한다. 오늘은 지살일이다.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움직여야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개입을 삼가면 편이 좋으며 건강에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때를 기다리고 심신을 안정시켜라. 오늘은 망신살에 원진살에 맞닿는다. 망신살에는 실수를 자주한다. 이로 인해 내외적으로 걱정거리가 생길 수 있다.	신용과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하게 선두에서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음속에 갈등이나 번민이 따르니 주변의 변동에 대처하여 자제심을 가지고 무난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머리를 쓰면 이루어진다. 오늘은 역마일이다. 지살과 역마의 만남이다. 움직이는 날이다. 앞서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면서 번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오늘의 마음: 싸늘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쾌청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오늘의 마음: 구름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오늘의 마음: 여우비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오늘의 마음: 먹구름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오늘의 마음: 파도
현재의 상태에서 더 큰 변혁의 일면을 맞게 된다. 뜻하지 않은 일의 발생으로 다소 당황하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대 이상으로 찾을 수 있다. 기분에 치우치지 말고 침착하게 밀고 나아가라. 욕심 부리지 말라. 오늘은 돼지날이다. 오늘은 돼지피와의 거래에서 신중해야 한다. 문제발생시 뱀피가 해결해준다.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오늘은 양이 돼지를 만나는 날이다. 화제가 지살을 만난 날이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날이다.	항상 자신의 주장보다는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혜롭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때이다. 의욕이 저하되는 모습을 타인에게 들릴 수 있으니 국기의 정신이 필요할 때다. 무리하면 스스로 상처이다. 원숭이가 돼지를 만나는 날이다. 망신살이다. 자칫 망언이나 화통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일만 커지게 된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육구분출, 잠재력발휘의 날이고, 건강과 금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많고 고심하게 되며 주위로부터 구설이 뒤따르기도 하니 특히 근신하여야 한다. 패사에 많은 애로가 따르니 성급하게 나서지 말고 돌파구를 찾도록 노력하라. 장래를 봐서 거래에 투자하라. 오늘은 검살일이다. 서류상의 실수로 장래 압류도 들어올 수 있는 날이니 조심하라.	별로 진척이 없는 시기이므로 무엇을 이루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를 필요로 한다.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여 현 위치에서 좀 더 높은 자리로 도약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곧 이 위기는 극복 되겠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라. 오늘은 돼지날이다. 돼지가 돼지를 만났으니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는 형상이다. 자제하라.						